

## 성폭력 근절 공공 캠페인 기획을 위한 방향성 모색

성폭력에 대한 언론 보도 양상과 대학생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임연수** 홍익대학교 광고홍보학부 부교수\*\*  
**장안리** 홍익대학교 광고홍보학부 조교수\*\*\*

이 연구는 성폭력 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관련 언론 보도와 대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탐색한다. 이를 통해, 성폭력 근절 공공 캠페인에 대한 바람직한 기획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성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과 여론을 살피기 위해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의미 연결망 분석을 시도했다. 또한, 기존 사회 통념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대학생들을 주요 공중으로 선정하여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언론과 공중 모두 성폭력 범죄를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세부적인 형태로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가 성폭력을 심각한 인권 침해 범죄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처벌 강도와 수위에 따라 분리된 문제들로 나누어 살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남성은 가해자이고 여성은 피해자라는 성별 차이에 따른 차별적 인식을 나타냈다. 이러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성범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성폭력 근절 캠페인 기획 방향은 성폭력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과 피해자 중심의 인권 교육 강화에 초점을 둘 필요성을 제기한다.

**KEY WORDS** 성폭력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 사회적 인식 • 언론 • 의미 연결망 분석 • 질적 연구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yonsoolim@hongik.ac.kr, 제1저자

\*\*\* hipr@hongik.ac.kr, 교신저자

## 1. 서론

최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각성과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2018년 1월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서지현 검사는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들이 저지른 성추행과 성폭행 범죄 행위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와 범죄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피해 사실들을 전달했다(손석희, 2018. 1. 29). 이를 계기로 연극, 영화, 문단 등 문화 예술계를 비롯하여 정치계, 언론계, 방송계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미투(Me Too) 캠페인이 활발히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7년 10월, 미국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Alyssa Milano)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임을 밝히고, 미국 시민인권운동가인 타라나 버크(Tarana Burke)가 제안한 미투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Khomami, 2017. 10. 20). 미투 캠페인은 성범죄 피해를 세상에 알리고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인권 운동으로 세계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투 캠페인은 성폭력 범죄가 단순한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노력을 요구하는 공공 캠페인 활동이기도 하다.

공공 캠페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조직화 된 커뮤니케이션 활동들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이끄는 설득과 동기 부여를 목표로 한다(Rogers & Storey, 1987). 나아가 공공 캠페인은 사회 문제와 쟁점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변화를 이끄는 활동이기도 하다(Weiss & Tschirhart, 1994). 일반적으로, 공공 캠페인 활동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해당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의지(public will) 형성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홍종필, 2006).

성폭력 문제 근절을 위한 미투 캠페인은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이 있기 전까지 국내 활동 사례는 미미한 편이었다. 한 언론 보도에서는 우리 사회가 미투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현상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및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사회적 편견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김현경, 2018. 1. 8). 이를 뒷받침하듯, 서지현 검사는 2018년 5월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내 성폭력 범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의지가 없었고 오히려 법무부 검찰 조사단을 비롯한 주변의 2차 가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권남기, 2018. 5. 27).

사실, 우리 사회는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 5400명 중 21.3%가 신체 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피해를 한 번 이상 경험한 적이 있는데,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는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는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여성가족부, 2017).

성폭력 범죄에 대한 소극적 대응은 범죄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08년 1만6129건에서 2015년 3만1063건으로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선 외, 2017).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 현 상황에서 미투 캠페인을 통한 사회적 논의와 인식 개선이 이어지고 있는 측면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지니게 한다.

이 연구는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보고,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위한 공공 캠페인 기획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기존에 진행된 성폭력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이론적 담론 분석(김은경·이나영, 2015; 김훈순, 2004; 변혜정, 2004), 설문 조사(박명숙·한인영·유서구, 2008; 이영란·김경미·최소은, 2013), 그리고 주요 언론 보도에 대한 내용 분석(손영준·홍주현, 2018; 손현정·이종혁, 2012; 최현주, 2009; 홍지아, 2009)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들이 시도하지 않은 연구 방법들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다 광범위하고 면밀하게 탐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끼치고 또한 반영하는 관련 뉴스 기사들을 비정형 자료 분석 방법을 통해 광범위한 범주의 언론 보도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주요 공중 분석 연구가 미미한 점을 보완하고 공중 인식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 면접을 통한 질적 접근 방법을 시도한다. 이러한 혼합된 분석 방법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 캠페인 기획 방향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 2. 성폭력 개념

성폭력은 일반적인 폭력 행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권력 관계의 불평등과 차별에서 기인하는 인권 침해 행위다(Jewkes, Sen, & Garcia-Moreno, 2002).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선언한 ‘세계인권선언문’ 1조는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인간으로 지니는 이성과 양심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돌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948). 국제연합은 성폭력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윤리를 위배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993). 국제보건기구에서도 성폭력을 심각한 공중 보건과 인권 침해 문제로 정의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국내에서도 법무부와 경찰청에서는 성폭력을 심각한 범죄 행위로 적시하고 관련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홈페이지(www.mogef.go.kr)를 통해서 성폭력 예방 교육 자료와 동영상 등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학교, 기업,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정부 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참고해 보면,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가해 행위(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 행위)로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대부분의 관련 기관들에서는 성폭력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기에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의 세부 개념들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림 1〉은 경찰청 공식 블로그(<http://polinlove.tistory.com>)에서 성폭력 제반 개념들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이루어지는 강간 및 강제 추행 등의 성적 가해 행위로, 성폭력 관련 법률에 의해 가해자를 형사상 처벌할 수 있다.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행위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추행을 의미하며,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은 일반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의미하며, 직위 등 권력 관계를 이용하여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말이나 행동)로 형사상 처벌 대상은 아니며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이경환, 2007).

그림 1. 성폭력 관련 개념들: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출처: 경찰청 공식 블로그(<http://polinlove.tistory.com/10265>)

변혜정(2004)은 법적인 성폭력 개념 규정이 폭력이 발생하는 근원인 사람과 사람 간의 불평등한 관계와 인권 침해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보다는 ‘성적인(sexual)’ 언행에 대한 피해 정도에 국한되어 그 의미가 개인적인 협소한 문제로 편협하게 인식된다는 점을 비판했다. 특히 성희롱의 경우, 불평등한 사회 구조적 병폐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아닌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에 초점을 두고 범죄 행위로 규정해야 일상적 가해 행위가 근절될 수 있다(Fitzgerald, 1996; Ha, 2007; Moon, 2009). 한희정과 전해정(2015)은 성희롱 개념과 연관된 최근 6년간의 국내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성희롱 개념에 대한 법적, 사회문화적 개념이 축소되어 매우 가벼운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엄격한 의미로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성폭력에 포함되는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성폭행에 비해 사소한 잘못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성폭력 개념을 구체적으로 이해시키려는 의도가 오히려 흉악한 범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강력 범죄 행위와 누구나 범할 수 있는 경미한 실수 정도의 행위로 구분 짓는 오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희롱은 형사상 처벌이 없다는 점에서 성폭행이나 성추행에 비해 경미한 성적 언

행 정도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은 사회적 또는 물리적 환경이 무질서한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 해당 지역 사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사회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Wilson & Kelling, 1982). 깨진 유리창 이론은 지역 사회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정책적 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이기는 하지만 성폭력 문제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성폭력 관련 세부 개념들 중 성희롱을 경미한 실수나 언행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방치되거나 고착화되는 경우, 성희롱 문제는 결국 성추행으로, 나아가 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범죄 행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깨진 유리창 이론을 통해 살필 수 있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적 가해 행위(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 행위)를 의미하며, 공동체의 화합과 결속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성적 언행 정도에 따른 처벌 기준에 초점을 둔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의 단계적 구분 방식은 성폭력 개념을 포괄적 인권 침해 범죄와 연관된 의미보다는 파편화된 개인적 일탈 행위로 인식하게 만든다(변혜정, 2004; 한희정·전해정, 2015). 이는 성폭력에 대한 개념적 모호함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도덕적 해이와 성범죄 증가가 초래될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 3. 성폭력에 대한 언론 보도

일반적으로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는 사회적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정책 결정이나 문제 해결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과 과정에 대해서는 의제 설정 이론(agenda setting theory)을 통해 살필 수 있다(McComb & Shaw, 1972). 1990년대에 제기된 2단계 의제 설정 이론은 언론 보도가 주요 쟁점에 대한 선정뿐만 아니라 해당 쟁점에 대한 해석과 인식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언론 보도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를 확장시켰다(Ghanem, 1997). 관련 연구들에서, 언론이 보도한 특정 쟁점에 대한 뉴스 프레임(news frame)은 수용자들에게 현실 인식과 가치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제기되었다(McCombs & Ghanem, 2001). 엔트만(Entman, 1991)에 의하면, 특정 쟁점에 대한 뉴스 프레임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수준의

공적 지식을 형성하게 한다. 즉, 언론 보도는 특정 쟁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형성에 주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김수미(2014)는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한 한국 주류 언론의 보도 행태는 빈곤, 실업, 가정 폭력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의 책임을 개별 주체의 병리적 혹은 정서적 문제로 치환하여 개인적 책임으로 귀속시키는 프레임을 양산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성폭력에 대한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언론 보도에 따른 긍정적인 의제 설정 기능보다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문제를 주로 제기하고 있다. 김은경과 이나영(2015)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선정적인 사건 재현으로 인해 잠재적 피해의 두려움을 양산하고 가해자 남성은 정상적이지 않은 병리적 존재로, 피해 여성이나 아동은 유약한 존재로 묘사하여 극단적인 성적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한다고 주장했다. 홍지아(2009)는 성폭력 가해자를 비정상적인 살인마로, 피해 여성을 남성에게 비해 열등한 사회적 존재로 묘사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재생산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현주(2009)는 여성 대상 범죄 보도를 분석한 결과,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 따른 남성 중심적인 가치가 재생산되고 있음을 밝혔다. 김훈순(2004)은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 모두 여성 관련 범죄 보도에 있어서 상업주의적인 태도와 남성 편향적인 관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손영준과 홍주현(2018)은 2016년도에 보도된 국내 주요 방송사들의 성범죄 관련 뉴스 보도 행태를 분석한 결과, 여성 피해자보다 남성 가해자에 중점을 두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대체로 균형적인 보도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 행태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소수의 주요 언론사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거나 1년 이내의 한정된 기간 동안에 나타난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방법론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네이버 뉴스 검색 서비스에서 수집 가능한 모든 종합 일간지들의 뉴스 기사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비정형 자료 분석 방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다양한 유형들(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을 포함하고 이들 개념적 속성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 4.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성폭력은 일반적인 폭력과 마찬가지로 불평등한 사회적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다 (Jewkes et al., 2002).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폭력 범죄는 본능적이고 개인적인 성 충동에서 일어나는 병리적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 과정에서 조성되는 불합리한 사회 구조적 병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살피고 있다(박명숙·한인영·유서구, 2008; 변혜정 2004; 손현정·이종혁, 2012; 홍지아, 2009; La Fond, 2005). 박명숙 등(2008)은 성폭력에 대한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과 인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그 연구에서는 먼저, 피해자에게 성폭력 행위 유발의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성범죄 신고를 망설이게 하고 적극적 대응을 저해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 전통적인 유교적 성 역할이 강조됨으로써, 강한 남성상과 약한 여성상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이 고착되었다는 점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에 대한 대응을 개인적 문제로 인식하여 외부의 도움과 사회적 개입에 대한 불편한 인식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혜정(2004)은 성폭력에 대한 관습적으로 재생산되는 남성 편향적인 사회적 인식이 성범죄가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인권 보호 및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최근 미투 캠페인 활동과 함께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공공 기관, 학교, 기업 등에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고,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자료 배포 및 예방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성폭력 근절 캠페인 활동은 사전 예방 교육과 사후 대응 활동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성폭력 예방 교육 활동이 인권 및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여성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교육 대상이 여성보다는 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편이다.

네이버(www.naver.com)에 성폭력을 검색하는 경우, <그림 2>와 같이 “당신 곁에 우리가 있어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상담 및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사후 대응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관련 연락처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폭력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들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특히 여성과 아동이



그림 2. 네이버(http://naver.com)의 성폭력 예방 캠페인



## 당신 곁에 우리가 있어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혼자 견디고 계신가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찾아 드립니다.

**예방과 교육**

여성가족부 성폭력예방 교육자료  
성범죄자알림서비스  
마음성폭력 대응방법  
신고 사이버경찰청

**상담 및 지원**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한국여성민우회 02-335-1858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폭력 예방 교육과 상담 지원 프로그램들이 피해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진행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 근절 캠페인 활동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성별을 구분하여 남성은 가해자고 여성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인식을 부각시키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적 인식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 집단 간 관계 양상에 초점을 두고 집단 간 갈등, 편견, 차별 등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사회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이 있다(Hogg, 2016; Taifel & Turner, 1979). 사회 정체성은 특정 사회 집단에 속해 있다는 개인의 지각(individual's knowledge)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 느끼는 정서적인 의미와 가치를 함께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Taifel, 1972). 개인이 속한 특정 사회 집단 또는 성별, 연령과 같은 사회 범주에 대해 사회 정체성을 지닐 때, 자신이 속한 집단을 동일시하고 타 집단을 구분하게 되면서 다양한 집단 간 관계가 발생한다(Turner et. al., 1987). 이러한 사회 범주화(self-categorization) 과정은 자신이 속한 특정 집단에 우호적인 동화 편향(assimilation bias)과 타 집단에 적대적인 대조 편향(contrast bias)을 극대화할 수 있다(Hogg, 2016; Reicher, 1987; Reid, 2012; Turner et. al., 1987).

성폭력 근절 캠페인이 단순히 생물학적 성별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접근 방식에 대해 사회 정체성 이론을 적용시켜 보면 성별 집단 간 갈등과 편견이 확산될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자기 범주화 과정을 통해 사회 정체성이 공고화될 경우,

성별 차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우월적 태도로 인해 배타적 차별 행위로 발현할 수 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별 차이에 대한 차별과 혐오 현상은 이러한 이론적 적용의 실재를 보여 준다. 또한, 생물학적 성별을 구분하는 캠페인 활동은 성폭력이 개별 여성에게만 국한된 문제로 인식되어 남성이 피해자이거나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권력 구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장시키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여기서 페미니즘 또는 젠더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차성(intersectionality)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차성 개념에 따르면, 한 개인의 사회적 위치는 하나의 특정 권력 관계 유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급, 인종, 연령, 젠더 등 다양한 사회적 권력 관계들의 복잡성 속에서 구성된다. 콜린스(Collins, 2000)는 개인에게 작동하는 권력 관계들이 ‘지배의 매트릭스(matrix of domination)’를 구성하고 이러한 권력 관계들의 축들이 복합적으로 교차하고 맞물림에 따라 개인에게 오는 사회적 혜택 또는 억압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나영(2017)은 교차성 개념을 현재 존속하는 불평등 현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계화한 관계들 속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모순과 문제들에 대응해 갈 수 있는 적절한 이론이자 방법론으로 평가했다. 김수미(2018)는 젠더 불평등에 따른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 간의 이항 대립적인 혐오와 적대 현상을 극복하고 연대와 공감의 정치적 과정으로 나아가는 방안을 다양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교차성 개념에서 찾을 수 있음을 주장했다. 교차성 개념은 사회적 권력 관계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견하는 접근 방식이며, 특히 사회적 억압과 차별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경험에 근거를 둔 관점에서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비판한다(이나영, 2017; Collins, 2000). 이러한 측면에서 교차성 연구들은 기존에 구축된 지배적인 담론에서 벗어나 개별 주체들의 경험과 관점에서 바라보는 질적 연구 방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백미숙·이종숙, 2011; 이나영, 2017).

교차성 관점에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생물학적 성별 차이에 따른 남성과 여성간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고 근절시켜 나가는 방향성에서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지배 시스템들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불평등한 관계들에 집중하고 이에 대응하고 개선하는 구체적인 실천적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공동체적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교차성 관점에서 성폭력과 연관된 주요 공

중인 대학생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성폭력 피해 주체들의 인식을 면밀히 살펴 사회적 대응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 5. 연구문제

이 연구는 최근 주요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성폭력 관련 범죄들(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에 초점을 맞추고,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심도 깊게 살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성폭력 근절 캠페인을 위한 바람직한 기획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우선, 이 연구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여론 형성에 주된 영향을 끼치는 언론 보도에 주목하고,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최근 성폭력 관련 문제들에 대한 주요 언론 매체의 뉴스 기사들을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의미 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통해 언론 보도에 내재된 상징들 또는 개념들의 의미 구조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언론의 접근 방식 및 뉴스 메시지 구조를 파악해 본다. 이와 연관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성폭력에 대한 언론의 접근 방식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1-1: 성폭력 제반 개념들(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구분하여 보도하는가?
- 연구문제 1-2: 성별에 따른 차별적 인식을 나타내는가?

또한, 관련 공중의 입장에서 성폭력 제반 개념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하는 지에 대해 심층 면접을 통한 질적 접근 방법으로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성폭력 관련 주요 공중들 중에 대학생 집단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대학생들은 선행 연구에서 제기된 불평등한 사회·문화적 인식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미래 세대고, 최근 성폭력 문제가 대학 내에 주요 문제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연구는 대학생들이 성폭력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대학생들이 성폭력 제반 개념들(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어떻게 인식하고 정의하는지를 질적 방법을 통해 면밀히 고찰해 본다. 이와 관련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2: 대학생들은 성폭력 제반 개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연구문제 2-1: 성희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 연구문제 2-2: 성추행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 연구문제 2-3: 성폭행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언론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 구조와 관련 공중들의 입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성폭력 개념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사회적 인식에 대한 분석적 이해를 도모하고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 방안과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폭력 근절 공공 캠페인 기획 방향을 탐지해 본다.

## 6. 연구 방법

### 1) 의미 연결망 분석을 통한 언론 분석

여론 형성과 쟁점화 과정에 주된 영향을 끼치는 언론 보도 내용들에 대한 의미 연결망 분석을 통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언론의 접근 방식과 뉴스 메시지 구조를 살펴본다. 의미 연결망 분석은 대용량의 뉴스 기사나 문서들에 내재된 상징들 또는 개념들 간의 의미 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Monge & Contractor, 2003; Monge & Eisenberg, 1987). 특히, 기존 논의가 부족한 새로운 사회 현상이나 담론 등에 대한 현황을 탐색하기에 효과적이다(이은선·임연수, 2012).

최근 성폭력 관련 뉴스 기사들은 네이버 뉴스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집했다. 뉴스 검색 키워드는 ‘성폭력’을 비롯하여 세부 개념들인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으로 구분하여 각각 수집하였고, 각 키워드는 뉴스 기사 제목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검색 대상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모든 종합 일간지들(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매일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로, 검색 가능한 모든 기사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뉴스 기사는 네이버에서 최근 기사 검색이 제공되는 2010년 6월부터 미투 캠페인 이전인 2017년 8월 까지의 기간 동안 성폭력 범죄를 다룬 기사들이었다. 검색 기간을 미투 캠페인 이전까

지로 다른 이유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기존 언론 보도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연구 의도에서 기인한다. 수집된 뉴스 기사 제목들은 성폭력 관련 991건, 성폭행 2775건, 성추행 2245건, 성희롱 1011건이었다. 각 키워드별 수집된 전체 기사 제목들에 대해 현대 문어 말뭉치 용례 검색기인 ‘글잡이 II’를 사용한 빈도 분석을 통해 주요 핵심 단어들 선별했다(이은선·임연수, 2012). 출현 빈도 5% 이상인 주요 핵심 단어들에 대해 사회 연결망 분석 도구인 UCInet VI(Borgatti, Everett, & Freeman, 2002)를 사용하여 각 키워드별 전체 기사 제목들의 구조를 파악했다.

## 2) 질적 방법을 통한 대학생들의 인식 분석

성폭력 제반 문제들을 공중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심도 깊게 탐색하기 위해 최근 대학 내 성희롱 사건 등으로 성폭력 문제에 민감한 대학생들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정의하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전 연구가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귀납법으로 현상을 탐색하는 질적 방법을 선택했다. 질적 방법은 일상에서 실현되는 복잡한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갖고 연구 대상자들이 사회 현상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파악하기에 적합한 방법론이다(Marshall & Rossman, 1995; Rubin & Rubin, 1995).

질적 방법을 통해 연구 대상자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복잡성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상황, 사람들, 상호작용, 사건, 행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Patton, 1980, 22).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질적 방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심층 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심층 면접은 깊이 있고 개방성 묘사를 얻는 데 적합하며(Patton, 1987) 면접자가 인터뷰를 진행하여 대화를 이끌지만 피면접자가 어떻게 대답을 구성하고 의미를 형성하는지 존중해 준다(Marshall & Rossman, 1999). 이러한 심층 면접의 가장 큰 장점은 연구 대상자의 경험과 생각을 깊이 있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 대상자들은 자원자 표집을 사용하여 섭외했다. 2017년 5월부터 2017년 6월 까지 충청권의 H대학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34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섭외는 학부 건물에 연구 참여 공지를 부착하여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소액의 사례비가 주어졌다. 학생들의 나이는 20~24세로 이루어졌고 연구 주제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여학생 그룹과 남학생 그룹을 분리하여 진행했다. 여학생은 총

16명이 4팀으로 구성되어 참여했고, 남학생은 총 18명이 4개의 소그룹으로 나뉘어 참여했다. 연구 주제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남학생 인터뷰는 남성 연구자가, 여학생 인터뷰는 여성 연구자가 각각 진행했다.

모든 인터뷰는 40~60분 정도 소요되었고 평균 50분이었다. 반구조적 개방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질문지 문항은 참여자들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에 대하여 각각 어떻게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인터뷰는 모든 대상자들의 사전 동의 후 녹음되었으며 인터뷰 완료 후 녹음된 내용은 근거 이론 방법을 사용하여 전사 후 분석되었다. 코빈과 스트라우스(Corbin & Strauss, 2008)에 의해 개발되고 발전된 근거 이론 방법은 자료를 사용하여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이론화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체계적인 연속 비교(constant comparison) 방법을 사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코빈과 스타라우스가 권장하는 개방 코딩(open coding)과 축 코딩(axial coding)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면위로 드러난 주제 및 용어들을 포착하여 현상을 유형화하고 분석하였다(Corbin & Strauss, 2008; Strauss & Corbin, 1990; Glaser & Strauss, 1967). 또한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 연구자들은 서로 지속적으로 메모를 적고 교환했다. 연구자 각각의 소그룹 인터뷰를 마친 후 인터뷰와 관련되어 토론을 하였으며 참여자들의 반응, 비언어적인 표현, 인터뷰 과정 등에 대하여도 논의함으로써 연구 결과 분석의 신뢰도를 높였다(Corbin & Strauss, 2008; Denzin, 1989; Denzin & Lincoln, 2003; Geertz, 1973; Miles & Huberman, 1994; Rubin & Rubin, 2005).

## 7. 언론 분석 결과

### 1) 빈도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 수집된 뉴스 기사 제목들에 대한 단어 빈도 분석 결과, 각 키워드별(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상대적으로 자주 언급된 주요 단어들은 <표 1>과 같다.

성폭력 관련 뉴스 기사 제목에 가장 자주 언급된 단어는 ‘피해(201회)’, ‘아동(106

표 1. 단어 빈도 분석 결과

성폭력	빈도	성폭행	빈도	성추행	빈도	성희롱	빈도
피해	201	성폭행범	328	교수	215	발언	76
아동	106	혐의	262	교사	203	서울	72
범죄	101	여성	236	혐의	197	교수	68
피해자	92	집	229	의혹	172	여성	62
법	73	피해	205	서울	159	직원	61
장애	60	경찰	173	학생	146	교육	61
여성	58	징역	165	경찰	142	교사	54
학교	58	초등	136	법	113	징계	50
장애인	55	법	127	구속	111	법	49
예방	50	女	124	피해	108	女	48
대책	48	집단	123	女	108	논란	47
지원	42	사건	119	제자	108	예방	47
처벌	41	또	118	의대	105	직장	45
서울	38	장애	117	서울대	102	의혹	44
경찰	33	살해	111	집	93	피해	43
교육	31	딸	109	직원	92	의원	43
사건	30	아동	105	여성	90	검사	40
근절	29	구속	98	학교	90	파문	39
전담	28	피해자	90	의대생	90	학생	36
도가니	26	학생	82	초등	87	폭언	34
가해	25	미성년	77	논란	83	간부	33
교사	24	미군	76	검사	79	서울시	32
집	23	술	71	또	76	대학	31
은폐	23	전자	71	조사	73	여직원	30
가해자	22	男	71	상습	73	경찰	29
수사	21	선고	71	성추행범	73	서울대	27
사회	21	여중	68	고대	70	상습	26
청소년	21	의원	68	징계	65	해임	26
보호	20	여고생	67	징역	64	센터	25

회), ‘범죄(101회)’, ‘피해자(92회)’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행 관련한 주요 단어들은 ‘성폭행범(328회)’, ‘협의(262회)’, ‘여성(236회)’, ‘집(229회)’, ‘피해(205회)’ 순이고, 성추행 관련해서는 ‘교수(215회)’, ‘교사(203회)’, ‘협의(197회)’, ‘의혹(172회)’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 관련 기사에서는 ‘발언(76회)’, ‘서울(72회)’, ‘교수(68회)’, ‘여성(62회)’, ‘직원(61회)’ 순으로 분석되었다.

빈도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자주 언급된 단어는 ‘여성’, ‘법’, ‘경찰’ 등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기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인 ‘피해’는 성폭행, 성추행 관련 기사에서도 자주 등장했고, 단어 ‘아동’은 성폭행에 자주 언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 기사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된 단어인 ‘범죄’는 ‘성폭행범’, ‘성추행범’ 등과 연관해서 살필 수 있었다. 성폭력 처벌과 연관된 단어들을 살펴보면, 성폭행 기사에서는 ‘징역’, ‘구속’ 등의 단어가 있었고, 성추행에서는 ‘구속’, ‘징역’, ‘징계’ 등이, 성희롱에서는 ‘징계’, ‘해임’ 등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단어인 ‘교수’, ‘교사’, ‘논란’, ‘의혹’ 등은 성추행 및 성희롱 기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의미 연결망 분석 결과

각 키워드별(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뉴스 기사 제목들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 전체 단어 수 대비 5% 이상 출현하는 단어들을 대상으로 의미 연결망 분석을 통해 전체 메시지 구조를 파악했다.

우선, 성폭력 관련 기사 제목들에 대한 분석 결과는 <그림 3>과 같이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림 3>에서 단어를 상징하는 도형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해당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상대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뜻하며, 두 단어들을 연결하는 선이 두껍고 가까울수록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성폭력 관련 언론 보도는 주로 아동, 여성,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와 피해자들에 대한 기사를 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학생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 활동과 성범죄 대처를 위한 처벌과 대책에 대한 논의가 보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성폭행 관련 기사들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성폭행에 대한 언론 보도는 주로 성폭행범이 저지른 범죄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며 주 피해 대상자인 여성, 아동,



그림 3. 성폭력 관련 언론 보도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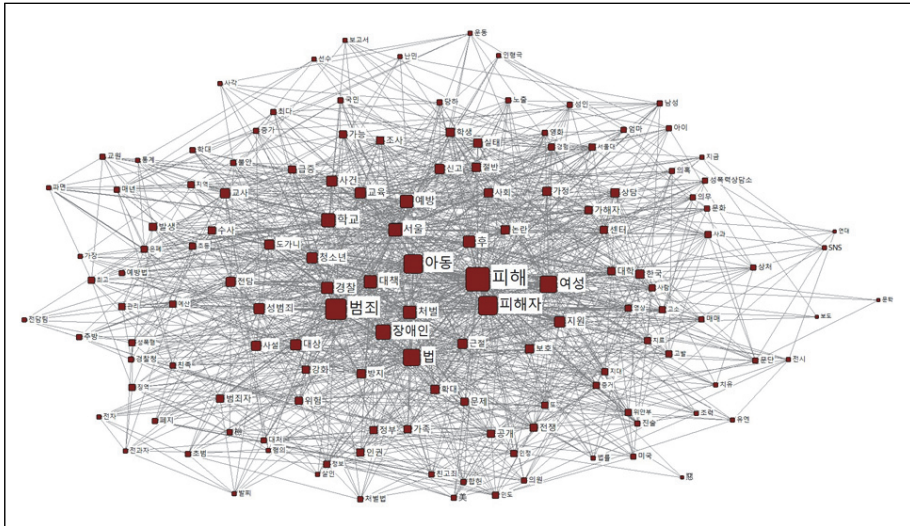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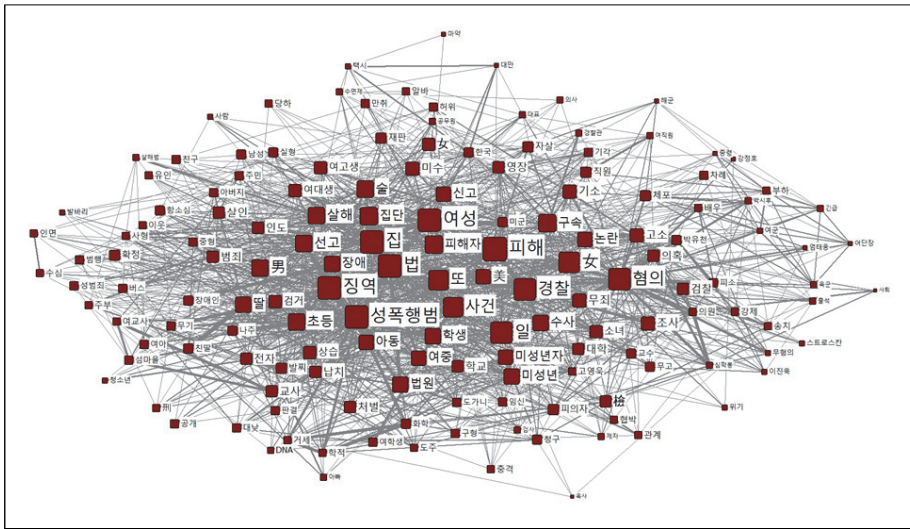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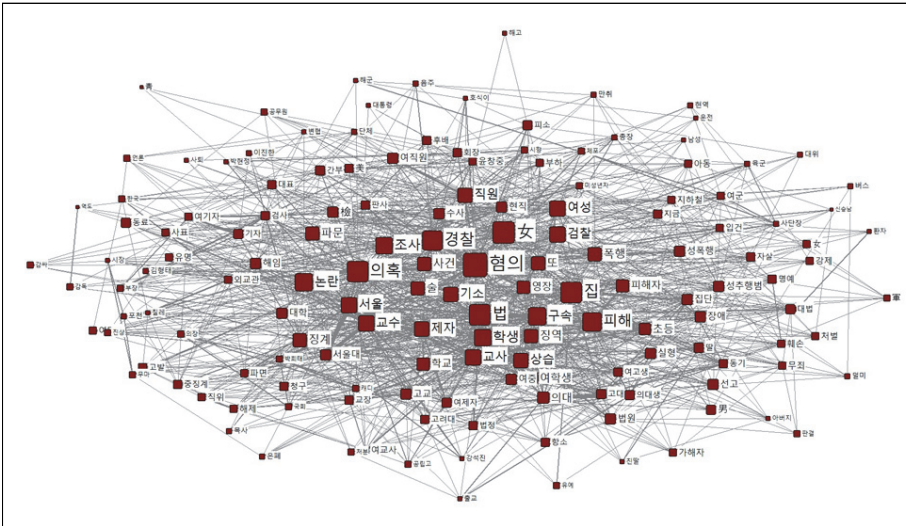


그림 4. 성폭행 관련 언론 보도 분석 결과



미성년자에 대한 사건이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살해, 살인 등의 강력 범죄와 징역 등의 법적 처벌 등이 주로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성추행 관련 언론 보도 분석 결과



〈그림 5〉에서 나타난 성추행 관련 기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추행 관련 언론 보도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혐의에 대한 의혹과 논란을 다루고 있다. 성추행은 교수와 교사 등이 주요 가해자로, 제자 또는 학생이 주요 피해자인 경우가 주로 보도되었다. 상습적인 성추행 피해에 대한 법적 구속이나 징역 등도 자주 보도되고 있다.

〈그림 6〉에 나타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희롱 관련 언론 보도는 주로 서울 지역이 자주 등장하며, 교수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행하는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에 대한 논란과 파문을 주로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릴 수 있다. 또한 직장이나 공공 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의혹과 징계 등을 보도하고 있다.

〈그림 7〉은 성폭력 제반 개념들에 대한 관계 구조를 단순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연결 관계가 형성된다. 가령,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관련 뉴스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여성, 법, 경찰 등의 단어들은 4개의 개념들을 모두 연결시킨다. 이처럼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많고 자주 사용될 수록 개념들 간 연결선은 두껍게 표현된다. 이는 언론 보도 내용의 유사성 정도를 나타낸다. 〈그림 7〉을 살펴보면, 성희롱과 성추행 관련 기사들 간의 연결선이 상대적으로 두껍게 나타났다. 이는 성희롱에 대한 언론 보도와 성추행에 대한 관련 뉴스들이 상대

그림 6. 성희롱 관련 언론 보도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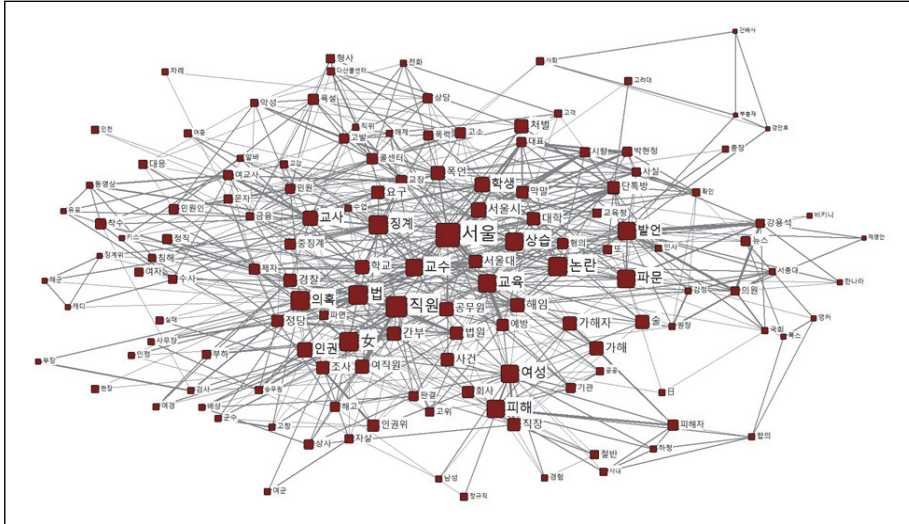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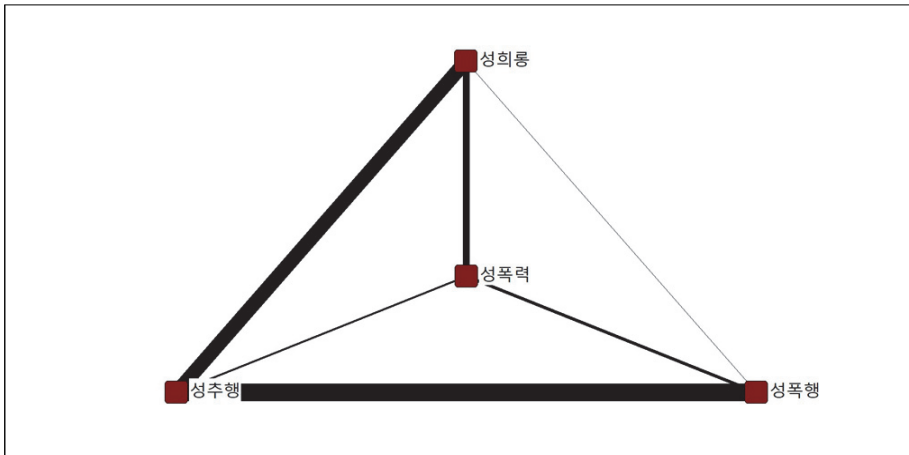


그림 7.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른 성폭력 제반 개념 간 관계 구조



적으로 공통적인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성추행과 성폭행 관련 언론 보도 내용도 유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살필 수 있다. 반면, 성희롱과 성폭행 뉴스 간의 연관성은 연결선이 가장 가늘게 나타나고 있듯이 상대적으로 가장 미미한

것으로 살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전반적인 성폭력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은 <그림 7>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모든 개념들과 상대적으로 가는 연결선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언론 보도가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의 개별 사건 보도와 유사성이 적음을 나타낸다.

## 8. 공중 분석 결과

### 1) 대학생들은 성희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 (1) 성희롱은 언어적, 시선적 폭력

성희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거의 모든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언어’로 성적인 부분에 대하여 ‘놀리는 것’을 성희롱이라고 했다. 성희롱의 대상은 주로 외모, 몸매와 같은 것이며 내용의 강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꼈다든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경우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했다. 학생들이 일차적으로 성희롱은 ‘말’에 국한된 것이라고 하였지만 인터뷰가 더 진행되면서 추가적으로 ‘불편한 시선’ 또한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추가했다.

진짜 아직까지 기억나거든요. 제가 중학생 때 학원을 다녔는데……, 안 좋은 기억이긴 한데, 그 이후로는 더 안 갔어요. 그때 한 남자애가, 저를 보고, 재 다리 진~짜 하얏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도 막, 별 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걸 유심히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자체가……, 더럽다고 느껴져서……. (여학생)

성희롱에 있어서 내용의 강도에 관한 얘기도 논의되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어떤 학생들은 시선이나 언어가 강도가 높을 경우에는 성희롱이 아닌 성추행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도 몇 명 있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모든 참여자들이 동의한 부분은 성희롱은 주로 언어로 가해지는 성적인 폭력이라는 것이었다.

심층 면접 결과 남녀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남학생들의 경우 의도하지 않은 성희

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남성 참여자들은 자신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실수로 여성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였고 혹시나 본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렇듯 남성들에게는 성희롱의 유형에 있어 의도적, 비의도적 경우로 나뉠 수 있다고 했다.

심층 면접 결과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성희롱의 가해자는 남성, 피해자는 여성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인식되어 있었지만, 동성이 동성에게 혹은 여성이 남성에게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불쾌함을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여성이 여성에게 ‘너무 예쁘다’, ‘다리가 얇다’ 등 외모에 대해 코멘트를 할 때나 혹은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외모 평가는 사회적으로 성희롱이라고 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예외 상황은 상대가 연예인 등 공인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즉, 연예인들은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대화에 언급이 될 것을 감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과 관련하여 외모나 몸매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성희롱이 아니라고 했다.

## (2) 성희롱은 일상적

성희롱이 언어와 시선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참여자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따질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인터뷰 중 여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였고 어떤 학생은 거의 매일, 또 어떤 학생들은 한 달에도 여러 차례 그런 성희롱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여학생들은 성희롱을 이야기하면서 성희롱의 일반화, 빈번함, 잠재적 가해자들의 민감한 반응 등에 대해 느끼는 불편함 등을 강조했다.

한번은 버스를 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냥 힐끔힐끔 보는 게 아니라 너무 적나라하게 시선을 고정하고 뻔히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여학생)

여학생들은 공공장소 특히 지하철 안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치마를 입으면 가방으로 뒤를 가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뒤에 있는 남성들에게서 “안 보니까 걱정 마” 혹은 “범죄자 취급하지 마”라는 등의 우롱적인 발언을 듣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자신들은 더 조심하기 위해 신경을 쓴 것뿐인데 상대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자신을 가해자 취급한

다고 생각하고 기분 나쁜 얘기를 할 때 당황스럽다고 호소하며 성희롱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기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여학생들은 성희롱에 있어서 자신이 일상에서 피해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한 반면, 남학생들의 경우는 일상적으로 자신이 성희롱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한다고 했다.

진짜 그런 기사 뜰 때마다, 만약 그게 내 동생이나, 내 어머니 같은 사람이 관련되어 있으면 내가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 있으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주 생각을 해요. (남학생)

평상시에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제가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이 성희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행동을 더 조심하게 돼서 좀 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학생)

학교에서 공용 컴퓨터를 사용할 때 카카오톡을 항상 켜 놓는데 혹시 컴퓨터 사용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나와서 자신이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한 얘기가 공개가 될까 늘 걱정이 돼요. 카카오톡을 항상 켜놓는데, 혹시 켜놓고 왔나?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누구와도 그런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되게 불안해요. 누가 혹시, 내꺼 볼까……. 혹시 카카오톡 켜놓고 왔나……. (남학생)

이렇듯 성희롱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지 않았어도 행여나 그러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 혹시 있지는 않나, 또 그러한 내용이 타인에 의해 노출이 될까 걱정이 된다고 했다. 인터뷰 결과 거의 모든 남학생들은 자신이 가해자가 될까 걱정이 된다고 하였지만 여학생들 중에는 그 누구도 자신이 가해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봤다고 했고, 반대로 남학생들은 자신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 없다고 했다.

### (3)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관대한 분위기, 여자 가해자는 쉽게 용서

심층 면접 결과 참여자들은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성희롱을 가볍게 여긴다고 생각

하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안에도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했다.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야한 농담을 하는 선배들이 간혹 있는데 그들이 야한 농담을 했을 때 주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다고 하며, 남성들끼리도 불편하지만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제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지속되는 것 같다고 했다.

대학교에서는 '성드립'이 친해지는, 살짝, 하나의 수단으로도 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서먹서먹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분위기도 풀리고 서로 친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남학생)

남학생들은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에 있어 남녀 차별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자들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솔직히 여자들도 막 드라마에서 남자 벗은 거 오늘 봤냐, 복근 쩐다. 우리가 만약에 똑같이 오늘 그거 봤냐, 엄청 허리가 잘록하다 이거 하고 똑같은 건데, 너무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말은 섹시하다는 거고,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거는 성희롱이라고 하는 건 되게 그런 것 같아요. (남학생)

확실한 건, 여자가 야한 농담을 했을 때 실패하는 부분은 거의 못 봤어요. 무조건 분위기가 핫해져요. 여자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진짜. 확률 상 남자가 모델 이런 썰을 푸는 거랑 여자가 푸는 거랑 받아들이는 것이 엄청 다르죠. (남학생)

남학생들은 여자들이 남성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할 경우에는 쉽게 용서가 되고 심지어 '걸크러시'라고 하며 오히려 그 여성을 더 멋있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반응의 차이는 남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 (4) 성희롱을 너무 가볍게 다루는 언론

참여자들은 성폭행과 못지않게 성희롱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여학생들의 경우, 언론에서 성희롱을 너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식으로' 언급하기 때문에 심각한 현상이 아니라는 뉘앙스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라고 다소 감정을 실어 이야기하였고, 댓글마저도 그렇게 달린다고 덧붙였다. 언론에서 성희롱 내용의 기사를 가볍게 다루기 때문에 댓글도 비슷한 뉘앙스의 글이 주를 이룬다고 했다.

댓글도 보면 ‘어딜 가나 다 그렇다’, ‘걸리면 운이 없었을 뿐’이다 등의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언론에서 성희롱도 심각하게 다뤄야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이 바뀔 것 같아요. (여학생)

##### (5) 성희롱도 엄중히 처벌 내려야

심층 면접 결과, 성희롱의 성범죄 여부는 의견이 분분했다. 성희롱은, 성폭행이나 성추행보다 강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희롱을 행사했다고 해서 범죄자라고 규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몇몇 학생들은 성희롱도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하며 성희롱은 언어, 시선으로 행사하는 행위이지만 상대가 느끼는 상처, 모욕감 등은 개인의 차이가 있고 깊은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성희롱의 강도와 별도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학생들이 있었다. 몇몇 남학생들 또한 성추행, 성폭행은 아니지만 성희롱 가해자도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였고 성희롱도 피해자에게 큰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큰 형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형에 있어서는 벌금형, 오랜 교육 시간, 사회생활에 제약, 최대 10년 징역 등 성희롱의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단, 처벌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의도적이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비해 조금은 덜 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참여자들은 성희롱과 관련된 대다수의 글이 단톡방, 채팅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거가 남아 처벌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물으며 성희롱도 처벌을 엄중히 할 경우 더한 경우의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성희롱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여 근절을 목적으로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반복되어 나왔다.



## 2) 대학생들은 성추행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 (1) 성추행 정의: 신체 접촉, 몰카, 권력 관계

인터뷰 결과 참여자들은 모두 성추행을 신체 접촉, 즉 물리적인 접촉과 관련된 성적인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쓱 만지는 것’, ‘기분 나쁜 만짐’ 등을 성추행의 일종이라고 하며 주로 출퇴근 등 쉽게 붐비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발생한다고 했다.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성추행을 설명할 때 버스, 지하철, 술자리, 화장실 등 특정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 설명한 반면, 남학생들은 의도성이 있는 행위, 권력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설명하며 차이를 보였다. 이런 차이는 직간접적인 경험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여학생들의 경우 자신과 친구들이 성추행 당했던 경험을 비취 보며 이야기를 풀어 나간 반면, 남학생들은 군대에서 들었던 이야기 혹은 언론에서 들은 이야기에 빗대어 성추행은 의도적으로 하되 주로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약자에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성추행은 지하철 같은 데서 이렇게 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정도? 이렇게 만지긴 하는데…… 막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막, 슬쩍 슬쩍……. (여학생)

성희롱은 어찌 보면 가해자가 인식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성추행은 가해자가 인식을 하고 있어도 행해질 수 있는 행위인 것 같아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해도 되겠지……, 나는 사장이니까. 문제가 될 것을 의식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는……. (남학생)

반면, 여학생 참여자들은 신체 접촉과 더불어 몰래카메라 역시 성추행의 일종이라고 분류하며 물리적일 경우가 많지만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동의 없이 침해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성추행이라고 규정하며 성희롱은 따질 수 없을 때가 많지만 성추행은 근거가 있어 따질 수 있는 경우라고 했다.

### (2) 성추행의 일상화

참여자들 중 특히 여학생들은 성추행도 보편화되어 있다며 학교의 술자리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하며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했다.

술자리에서 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선배나 아니면 남자 동기들이 그냥 스치듯 만지는? 그럼 '아 이게 뭐지?' 하는 것 같아요. 긴가민가할 때도 많고 근데 웬지 기분은 나쁘고, 주로 술자리에서 흔히 일어나요. (여학생)

저는 술자리에서, 선배니까 술을 먹고, 만졌을 때, 이게 처음에 만지면 실수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되면, 아! 이걸 실수가 아니다……, 이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 당해 본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하죠. (여학생)

몰래카메라에 있어서도 여학생들은 얼마나 주변을 살피고 조심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자신이 직접 당한 적이 있는 학생은 없었지만, 모두 몰래카메라의 보편화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신도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항상 조심한다고 했다.

저는 화장실에 갈 때도, 나사가 들어가는 곳에도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들어서 화장실 갈 때마다 한 번씩 다 살펴보고 일을 봐요. (여학생)

한번은 어느 콘서트를 갔는데 거기서 누가 어떤 여자를 몰래카메라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친구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뭐하는 거냐고 막 따졌어요. (여학생)

성추행을 경험한 학생들은 성추행을 당한 다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했다. 학생들은 때로는 자책하기도 한다며 성추행을 당하면 너무 화가 나는데 주로 친구들과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하며 화를 진정시킨다고 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말했어야 했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대처를 했었어야 됐나? 자꾸 생각이 나요……. (여학생)

성추행에 있어서도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주로 피해자는 여성이고 가해자는 남성

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여학생들은 항상 성추행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조심한다고 하는 반면, 남학생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 보지 않았다고 했다.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주로 군대에서 성추행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선임이 후임에게 성추행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동성끼리의 성추행은 성추행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며 자신들이 둔한 면이 있어서 불쾌감을 느끼지만 문제 삼지 않는다고 했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과 달리 자신이 성추행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주로 안 한다며 군대에서 선임에게 성추행당한 얘기를 들어도 자신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3) 성추행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

인터뷰 결과 대학생들은 성추행이 대학교 문화에서 가벼운 문제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처음 오티 왔을 때 형들끼리 그런 식으로 러브샷이든, 쇠골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충격적이라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학교생활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일이 자주 있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져 가고 나중에는 무더지는 느낌이 있긴 하죠. (남학생)

처음에는, 아 저거를 누가 저런 식으로 하나 하다가 슬슬 많이 겪으니까 이제 뭐 저 정도쯤이야 이런 식의 생각이 생기고……. (남학생)

남학생들은 또한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성추행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여성이 남성에게 했을 경우에는 쉽게 용서가 된다고 하며 이는 차별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만 해도 알바할 때 술 먹으러 가는 여자들이 장난으로 제 몸을 만지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이제 뭐 남자니까 만져도 된다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가는데, 만약에 남자가 단체로 와서 여자 알바생을 만지고 갔으면 바로 경찰이 왔을 일인데……. (남학생)

제가 고등학생 때 여자애들이랑 막 친하게 놀다 보니까 막 와서 엉덩이 만지고 그랬는데, 싫다고 얘기를 하고, 뭐 장난이지만 하지 말라는 뜻으로, 너희 계속 그러면 신고를 하겠다. 그럼 신고해~ 신고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남학생)

참여 남학생들은 자신은 성추행이라고 생각해도 상대가 농담으로 하면 자신도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아 농담으로 응대한다고 하며 여성들이 남성들을 성추행할 경우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오히려 문제화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남성이 성추행을 당할 경우 사회적으로 여성을 쉽게 용서해 주는 분위기가 있다는 점은 역차별이지만 남성은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성보다 더 크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어서 큰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았다.

#### (4) 성추행에 대한 인식에 있어 유교 문화의 영향

참여자들은 성추행 가해자들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며 주로 남성인 가해자들을 너무 쉽게 용서하거나 가해자의 배경을 미화하여 보도하는 현상은 한국 사회의 유교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며 이는 여성들에게 관대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문화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비단 기성세대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을 하며 성추행을 당한 당사자들은 자신의 친구들에게마저도 원인 제공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했다.

당연히 가해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고 피해자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여자들마저도 피해받은 여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학생)

가끔 제 여자 친구들도 그래요. 한번은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성추행을 당했는데, 친구들마저도 “네가 그렇게 좀 입었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너무 황당했어요. 나는 단지 예쁘게 입으려고……, 나의 만족을 위해 입은 건데……. 심지어 여자들한테도 자신이 원인제공을 한 것이라고 얘기를 들어 남성한테는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정말 화가 났어요. (여학생)

이러한 유교 사상에서 비롯된 사회적 분위기에는 남학생들도 동의하였지만 다소 다른 생각을 내비쳤다.

사회적으로 남성들이 여자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좀 더 이 문제가 남자에게 이뤘을 때는 심하지 않고 여자에게 일어났을 때는 강하게 반응이 오는 거 같아요. (남학생)

이게 좀 가부장적인 데서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여성을 약하게 보는 게, 어디를 가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는 것이, “어디서 여자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여성을 약자로 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행동이나 언어, 물리적인 힘에 있어서 과소평가하게 되는 경향이 생겼다고 봐요. (남학생)

이처럼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하고 강한 남성이 약한 여성, 즉 약자를 괴롭히면 문제가 된다는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았고 이런 생각에는 유교 사상이 큰 몫을 하였다고 했다. 이렇듯 성추행에 대한 반응은 남녀 차이가 있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주된 가해자인 남성들에게 너무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거부 반응이 있었고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이 약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지만 동시에 이들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생겨 더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성추행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5) 언론의 보도 경향이 2차 피해로 이어져

여학생들은 성추행과 관련된 기사를 볼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다고 하며 간혹 기사에서 성추행 피해자가 원인 제공자라는 뉘앙스가 있는 보도를 한다고 했다. 가령 피해자의 인상착의나 장소, 시간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를 강조할 때 화가 난다고 했다. 또한 성추행과 관련되어서 주로 가해자가 되는 남성들을 보호하는 글도 때때로 본다고 했다. 예를 들어 가해자는 ‘근면 성실한 사람’이며 ‘그럴 사람이 아닌데’ 혹은 ‘명문 대학에 다니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원래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나 ‘술에 너무 취해서’ 또는 ‘의도치 않은 실수’를 했다는 등의 얘기로 피해를 감싸는 기사가 나올 때가 있다고 했다.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해자가 뭐 ‘그럴 사람이 아닌데 술을 마셔서’ 등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정당화시키고 당위성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학생)

이처럼 여학생들은 성추행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보호받아야 하는 피해자는 원인 제공자로 처벌을 하고 신상을 보고해야 하는 가해자는 오히려 보호하는 것을 볼 때 화가 난다고 했다. 또한 성추행과 관련된 기사 제목들

은 대부분 자극적이며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며 성추행과 같은 기사를 보도할 때 조심해야 하는데 기자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주로 기사 헤드라인이 '20대 여성 지하철에서 성추행' 등 자극적으로 뽑는 것 같아요. 정작 가해자에 대한 얘기보다는 피해자가 중심이 되는 기사 제목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여학생)

성추행과 관련된 기사에서 또 여성들의 분노를 사는 부분은 성추행과 관련된 기사에 간혹 그림이 같이 실릴 때가 있는데 그림에 항상 피해자, 곧 여성은 약자로 처리가 되어 남성의 뒤에서 넘어진 모습 혹은 길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자세로 그려져 있고 짧은 치마를 입고 있다든지 아니면 야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질 때가 많다고 했다. 반면, 남성은 강자의 모습으로 주로 검은 색 실루엣으로 처리가 되어 여성의 앞에 그려진다고 하면서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힘의 불균형과 불균평이 그림에서도 표현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러한 모습은 여성은 항상 약자이며 피해를 입는 대상이고 남성은 강자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여도 무관한 대상으로 비춰지면서 독자들에게 사회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지위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정의해 버린다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더 진지하고 깊이 있게 논의했다.

몇 명의 여학생들은 이러한 언론의 성차별과 관련된 보도 내용 및 표현 방식이 오히려 2차 피해로 이어질 경우가 많다고 하며 여성에 대하여 너무 구체적으로 보도가 될 때 피해자들은 더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언론에서는 피해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을 잘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나 피해자에 대한 신상을 밝히고 사건을 상세히 보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성추행을 퇴치할 수 있을지, 성추행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면 안 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보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3) 대학생들은 성폭행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 (1) 성폭행은 강제성이 있는 성관계, 범죄

심층 면접 결과 참여자들은 성폭행은 '강간, 강제 감금, 직접적이고 원치 않은 성관계'라고 규정하며 성폭행은 '매우 심각하고', '무서운 일', '큰일', '놀랍고 두려운 일'이라고 하

며 성희롱과 성추행과는 차원이 다른 폭력이라고 했다. 성폭행을 성립하는 조건으로는 ‘강압적’인 부분과 성폭력 시 상대가 이에 대한 ‘저항’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참여자들은 또한 성폭행에는 성관계뿐 아니라 성관계 미수까지 포함된다고 했다.

성폭행에 대하여 얘기가 시작되자 여학생들의 경우 분위기가 진지해지고 대화 수가 더 줄어들었다. 여학생들은 아무래도 주로 성폭행의 피해자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하며 성폭력은 성희롱, 성추행과는 다르다고 했다. 이런 차별은 남학생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주변에 아는 사람이 당했다면 얘기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했다면 같이 화내고, 욕하고, 짜증을 낼 수는 있지만 성폭행을 당하면 두렵고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여학생)

참여 학생들은 성폭행도 성희롱이나 성추행과 마찬가지로 가해자는 주로 남성이고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라고 하며 성폭행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이 아닌 사이코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성희롱, 성추행은 일반 사람도 저지를 수 있을 법한 행위인데 성폭행은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며 성폭행은 흔한 일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 모두 성폭행은 범죄라고 규정하였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그 범행의 처벌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제안을 했다. 어떤 학생은 가해자들에게 무기 징역에 가까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했고, 또 어떤 학생은 물리적, 화학적 거세, 혹은 전자 발찌 등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성폭행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또한 궁극적인 근절을 위해서는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며 한국 사회의 성에 대한 억압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의견이 있었다. 성 교육 대상의 학년, 나이 등을 고려하여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를 막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제안이 남학생들과의 인터뷰에서는 반복적으로 나왔다. 또한 무엇보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보호가 중요하다고 하며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고 신고하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어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도 지인한테 들은 건데, 학교 안에서 만약에 피해가 발생하면, 일단 뭐 상담센터나 아니면 피해센터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도 장기간 계속 출석해야 하면서 자기가 당한 일을 계속 서술해야 하는? 그러니까 피해자가 오히려 지쳐서 그만 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보호도 필요하지 않나……. (남학생)

## (2) 2차 피해를 돕는 언론의 프레임

인터뷰 결과 참여자들은 언론에서 성폭행과 관련된 기사에서 성추행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더 드러내는 내용이 많다고 하면서 2차 피해의 우려를 언급했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나 의상 착의가 묘사될 경우가 있는 반면, 정작 가해자의 이름이나 나이는 밝혀지지 않을 때가 많다고 했다. 또한 성추행과 관련된 기사와 마찬가지로 사진/그림 등에 남성을 실루엣으로 여성을 칼라로 그릴 때가 많아 여성에 더 시선이 가게끔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참여자들은 주로 언론에서 데이트 성폭행 얘기를 많이 듣게 된다고 하며 사람들이 연인 사이라고 하면 구타나 성폭행이 정당화된다고 내비쳐지는 경우 또한 부당하다고 했다. 연관되어 근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위 말하는 골뱅이 스토리가 자주 등장하는데 남자들 사이에서 데이트 성폭행이 미화되고 무용담처럼 묘사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추행과 마찬가지로 성폭행의 피해자가 된 여성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나올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간혹 언론에서 ‘남성은 성욕이 더 많기 때문에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설령 그 여성이 그런 직업에 종사한다고 해도 원치 않은 경우는 무엇이 되었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학생)

## 9. 논의

이 연구는 성폭력에 대한 언론 보도와 공중 인식을 심도 깊게 고찰하여 사회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발견들을 바탕으로, 성폭력 근절 캠페인 기획 방향을 탐색하는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1) 언론의 접근 방식

### (1)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을 구분하여 보도

이 연구는 의미 연결망 분석을 통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 인식 형성에 영향을 주는 언론 보도 내용을 체계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성폭력 관련 언론 보도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사건 내용을 구분하여 보도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성폭력에 대한 언론 보도는 주로 아동, 여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와 피해자들에 대한 사항이었다. 세부적으로, 성폭행에 대한 기사들은 주로 여성, 아동,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행범이 저지른 강력 범죄 사건들과 그 처벌에 대한 내용이었다. 성추행 보도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혐의에 대한 의혹과 논란을 다루고 있으며, 교수와 교사 등이 주요 가해자로 언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에 대한 언론 보도는 학교나 직장에서 행하는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에 대한 논란과 의혹 등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그림 7〉에서 제시한 성폭력 제반 개념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희롱과 성추행 관련 언론 보도의 유사성이 높고, 또한 성추행과 성폭행 관련 기사 내용이 유사함을 나타냈다. 반면, 성희롱과 성폭력 간의 유사성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빈도 분석 결과를 참조하면, 성폭행과 성추행 관련 언론 보도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단어들은 피해, 구속, 징역 등이었고, 성희롱과 성추행 관련 보도에서는 공통적으로 교수, 교사, 논란, 의혹, 징계 등이었다. 즉, 성폭행과 성희롱 관련 보도 내용들은 확연히 구분되는 특성을 나타낸 반면, 성추행 관련 뉴스는 성폭행과 성희롱 관련 뉴스 내용 모두와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이는 성폭력 관련 사건들에 대해 언론이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사건들을 강력범죄에서 경범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보도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또한 포괄적 개념인 성폭력 관련 언론 보도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뉴스 내용과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언론의 접근 방식은 인권 침해와 연관된 포괄적 개념 중심이 아닌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별도 사건이나 문제 중심으로 보도하는 경향을 드러내 준다.

### (2) 여성 피해자 묘사 중심의 사건 보도 경향

성폭력 관련 언론 보도들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관련 기사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단어들은 여성, 법, 경찰 등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임을 적시하고 있다. 여성 피해자를 언급하는 방식은 ‘女, 여학생, 여직원, 여중, 여고생, 딸’ 등으로 나타났다. 사실, 성폭력 사건들이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여성 피해자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묘사하는 언론 보도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또한 성폭력 관련 언론 보도에서는 아동, 장애인, 여성 등의 피해자 묘사 중심의 뉴스 기사가 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문제 해결이 아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경향을 드러내 보인다. 반면, 가해자에 대해서는 ‘교수, 교사, 의대생, 성폭행범, 성추행범, 男’ 등 특정 직업군이나 특정 성범죄자, 또는 일반 남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나 묘사보다는 여성 피해자 중심의 언론 보도 행태는 성별 차이에 따른 차별적 인식을 언론이 재생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2) 대학생들의 인식

### (1)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구분

대학생들이 성폭력 관련 개념들인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에 대하여 각각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구분 짓는지 알기 위해 소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내용을 근거 이론 방법을 사용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인터뷰 결과 참여자들은 성폭행은 성희롱, 성추행과는 다른 명백한 범죄 행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성희롱은 언어, 성추행은 신체 접촉, 성폭행은 강제로 행사하는 성관계 및 미수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성폭행은 범죄로 분류하며 죄의 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한 구분에 있어서는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처벌보다는 어떻게 하면 근절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세세한 구분은 참여자들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개념을 정의하고 언행의 유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공통점이 상당했다. 이는 공통적인 경험을 한 대학생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개별적 의미와 차이를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 보편적인 사회적 인식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참여 남학생들은 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신들도 어렸을 때 성에 대한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로 동영상이나 친구들에게 들은 얘기를 근거로 간접적으로 이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하며 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제기했다. 성교육 대상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연령대와 상관없는 성교육 프로그램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교육을 통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폭력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성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인식 전환을 위해 참여자들은 캠페인도 제안했다. 가령 캠페인을 통해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이 정확히 무엇이며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캠페인이라든지, 성 인식에 대한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캠페인 등을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근절에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언론의 중요성도 부각되었다. 참여자들은 언론에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보도를 할 때 주로 보도 내용 및 표현 방법에 있어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러한 점이 2차 피해를 양산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언론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은 내용을 반드시 보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언론이 사건을 보도한 뒤에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고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중한 처벌에 대한 내용이 없을 경우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폭력 근절은 어려울 수 있다고 보며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력을 특히 강조했다.

## (2) 성별 인식의 차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과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드러난 현상은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의 입장 차이였다. 여학생들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에 있어 가해자들은 주로 남성이고 피해자들은 주로 여성들이며 자신들도 어느 정도 성희롱,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했다. 여학생들은 이렇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세 가지 개념들을 논하였기 때문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감정 이입이 됐고 성폭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또한 기존에 언론을 통해 들었던 성폭행 사건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다고

하며 마치 피해자의 친구인 것처럼 감정 이입을 했다. 또한 언론의 역할 및 가해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유교 사상 때문에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받는 것보다 남성을,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감싸는 식의 언론을 우려했다. 가해자들에게 오히려 약하고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울분을 토했다.

반면, 남학생들의 경우 주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피해자는 여성이라고 하는 점에는 동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성들도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했다. 하지만 아직 사회적 분위기가 남성은 물리적으로 강하고 또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남성이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건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의 제기를 했다. 여성을 약자로 보는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여성이 가해자가 되었을 때 쉽게 용서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성별에 따라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초점이 상이 하였으나 공통적으로는 남녀 모두 서로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특히 “남자는 왜 이래?” 혹은 “여자는 왜 이래?”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성향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닌 서로 잘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서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오해했던 부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과 관련되어 넘겨졌었던 부분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오해는 상당 부분 유교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약자, 남성은 사회적으로 강자라는 인식으로 인해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무엇보다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이분법으로 인하여 여성들은 보호의 대상, 남성은 조심해야 하는 대상으로 나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폭력과 성 불평등 인식은 보편적인 사회의 태도, 가치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통제된다는 선행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이영란 외, 2013; 박명숙 외, 2008; 변혜정 2004; 홍지아, 2009).

### 3) 종합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성폭력 관련 언론 보도 행태와 대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고찰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 언론과 공중은

성폭력 관련 문제들인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가 성폭력 문제를 인권 침해 범죄 행위와 연관된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세부 개념들 중심으로 나누고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처벌 수준에 따라 성폭행은 강력 범죄로, 성추행은 경범죄로, 성희롱은 경미한 실수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언론 분석에서 살펴 본 것처럼, 성폭력에 대한 언론 보도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사건 보도들과의 연관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공중들이 성폭력 문제를 포괄적인 인권 침해 범죄로 명확히 인식하기보다는 처벌 강도와 수위에 따른 단계적이고 분리된 문제들로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언론 보도 경향은 성폭력 문제에 대한 개념적 혼동과 모호함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깨진 유리창 이론의 적용을 통해 살펴보면, 성폭력 근절 공공 캠페인 활동에 대한 사회적 수용력이 저하되고, 도덕적 해이로 인한 성범죄 확대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여기서 이 연구는 성폭력 근절 공공 캠페인 기획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캠페인은 우선적으로 성폭력이 심각한 인권 침해 범죄라는 핵심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 범죄 유형이나 법적인 처벌 수위에 따른 형식적이고 구분되어진 논의를 지양하고, 상대방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모든 성적 가해 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 범죄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존 통념이나 사회 관행적인 폐단으로 인해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부당한 성폭력 사례들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쟁점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방향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성폭력 관련 문제에 대해 언론과 관련 공중 모두 성별 집단을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관련 보도는 주로 여성 피해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나 문제 해결 방안과는 무관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사건 중심 보도에 치중하고 있다. 대학생 참여자들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풍토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고 있으며, 성별 간 차이에 바탕을 둔 차별적 시각이 팽배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성별에 대한 차별적 시각은 남성은 조심해야 할 잠재적 범죄자, 여성은 보호해야 할 잠재적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유발시킨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나 동성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 등에 적절한 대처를 어렵게 만들며, 성폭력이 여성에게만 국한된 문제로 잘못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회 정체성 이론을 적용해서 살펴보면, 성별 차이에 따른 차별적 인식이 공고화되는 경우, 집단 간 편견과 혐오에

바탕을 둔 극단적 갈등이 촉발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남성 혐오 혹은 여성 혐오 현상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여기서 성폭력 근절 공공 캠페인의 기획 방향을 추가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캠페인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성별 차이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간 존중의 가치와 상호 이해 증진에 바탕을 둔 인권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는 선정적 사건 보도 행태에서 벗어나 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교차성 개념을 적용해 보면,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보도는 우선적으로 피해자가 느끼는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고, 피해 회복과 치유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여론 형성에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 매체와 기존 사회적 관습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대학생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러한 점은 페이스북(Facebook), 유튜브(YouTube), 트위터(Twitter) 등 다양한 매체에서 나타나는 성폭력에 대한 양상과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낸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중심으로 성폭력 현상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탐지해 보고자 한다.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심층 탐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성폭력 근절 캠페인의 기획 방향은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이고 공동체의 화합과 안정을 파괴하는 명백한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고, 인권 보호와 피해자 회복을 중심으로 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남기 (2018, 5, 27). 서지현 검사 “검찰 수사 의지 없었다…성폭행 폭로 저로 인해 용기 냈다면 영광”. *YTN*. URL: [http://www.ytn.co.kr/\\_ln/0103\\_201805271942498678](http://www.ytn.co.kr/_ln/0103_201805271942498678)
- 김수미 (2014). 한국 치유 문화 작동의 정치학: 신자유주의 통치 시기 주체 구성에 대한 일고찰. *언론과 사회*, 22권 1호, 114~161.
- 김수미 (2018). 정체성, 권력, 교차성: 젠더 정치의 급진적 맥락화에 대한 작은 생각.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9~42.
- 김은경·이나영 (2015). 성폭력, 누구에 대한 어떤 공포인가. *미디어, 젠더 & 문화*, 30권 2호, 5~38.
- 김지선 외 (2017).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2016)*.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현경 (2018, 1, 8). 해외에선 ‘미투’ 운동에 폭발적 반응 … 우리는?. *MBC뉴스데스크*. URL: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494244\\_22663.html](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494244_22663.html)
- 김훈순 (2004). 한국 언론의 젠더 프레임. *한국언론정보학보*, 11호, 63~91.
- 박명숙·한인영·유서구 (2008).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16호, 123~146.
- 백미숙·이종숙 (2011). 한국 언론학에서 ‘여성주의/젠더 연구’의 지식생산. *언론과 사회*, 19권 4호, 162~231.
- 변혜정 (2004). 성폭력 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국여성학*, 20권 2호, 41~74.
- 손석희 (2018, 1, 29). 서지현 검사 “검찰 내 성폭행도 있었지만 비밀리에 덮여”. *JTBC 뉴스룸*. URL: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82419](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82419)
- 손영준·홍주현 (2018). TV의 성범죄보도 연구. *한국방송학보*, 32권 3호, 31~68.
- 손현정·이종혁 (2012). 성범죄 보도가 여성 수용자의 사회적 현실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6권 2호, 357~378.
- 여성가족부 (2017).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URL: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jsessionid=VzzyHIZxM0O-pPx+JRdJinPx.mogef10?mid=plc504&bbsn=704236](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jsessionid=VzzyHIZxM0O-pPx+JRdJinPx.mogef10?mid=plc504&bbsn=704236)
- 이경환 (2007). 성희롱의 처벌 가능성 및 판단 기준. 한국성폭력상담소 (편). *성폭력, 법정에 서다* (272~309쪽). 서울: 푸른사상.
- 이나영 (2017). 페미니스트 질적 연구의 원리. *미디어, 젠더 & 문화*, 32권 4호, 71~99.
- 이영란·김경미·최소은 (2013). 대학생의 성희롱 및 성평등 인식 수준 및 영향 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4권 1호, 40~50.

- 이은선 · 임연수 (2012). 페이스북을 활용한 국내 기업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의미 연결망을 통한 메시지 구조 분석. *한국광고홍보학보*, 14권 3호, 124~155.
- 최현주 (2009). 여성 대상 범죄보도에 대한 프레이밍 연구. *젠더와 문화*, 2권 1호, 39~58.
- 한희정 · 전해정 (2015). 한국사회의 성희롱 개념 연구: 국내학술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31권 1호, 87~128.
- 홍중필 (2006). 공공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설계의 과학적 접근: 미디어 효과, 설득 및 행동변화 이론의 통합화 모형의 활용.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 · 광고*, 7권 2호, 249~276.
- 홍지아 (2009). 신문 기사 프레임 분석을 통해 본 성폭력의 의미구성. *한국방송학보*, 23권 5호, 458~498.
- Borgatti, S. P., Everett, M. G., & Freeman, L. C. (2002). *Ucinet for Windows: Software for social network analysis*. Needham, MA: Analytic Technologies.
- Collins, P. H. (2000). Gender, black feminism, and black political econom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68(1), 41~53.
- Corbin, J., & Strauss, A. (200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Denzin, N. K. (1989).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Denzin, N. K., & Lincoln, Y. S. (2003). *Collecting and interpreting qualitative materials*. Thousand Oaks, CA: Sage.
- Entman, R. M. (1991). Symposium framing US coverage of international news: Contrasts in narratives of the KAL and Iran air incid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41(4), 6~27.
- Fitzgerald, L. F. (1996). Sexual harassment: The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a construct. In M. A. Paludi (Ed.), *Sexual harassment on college campus: Abusing the Ivory Power* (2nd Ed.). New York,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Geertz, C. (1973). Thick description: toward an interpretive theory of culture. In R. M. Emerson (Ed.), *Contemporary field research: Perspectives and formulations* (2nd edition) (pp. 3~30). New York, NY: Basic Books.
- Ghanem, S. (1997). Filling in the tapestry: The second level of agenda setting. In M. McCombs, D. L. Shaw, & D. Weaver (Eds.), *Communication and democracy. Exploring the intellectual frontier in agenda-setting theory* (pp. 3~14). Mahwah, NJ: Erlbaum.
- Glaser, B., & Strauss, A.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Weidenfeld and Nicholson*, 24(25), 288~304.



- Ha, H. S. (2007). Sexual harassment coping style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3), 785~800.
- Hogg M. A. (2016) Social Identity Theory. In S. McKeown, R. Haji, N. Ferguson (Eds), *Understanding peace and conflict through social identity theory* (pp. 3~17). Peace Psychology Book Series, Cham: Springer.
- Jewkes, R., Sen, P., & Garcia-Moreno, C. (2002). Sexual violence. In E. G. Krug, L. L. Dahlberg, J. A., Mercy, A. B. Zwi, & R. Lozano (Eds.),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pp. 147~181).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Khomami, Nadia (October 20, 2017). #MeToo: how a hashtag became a rallying cry against sexual harassment. *The Guardian*, Retrieved from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oct/20/women-worldwide-use-hashtag-ag-metoo-against-sexual-harassment>
- La Fond, J. Q. (2005). *Preventing sexual violence: How society should cope with sex offender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arshall, C., & Rossman, G. (1995). *Designing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Marshall, C., & Rossman, G. B. (1999). The “what” of the study: Building the conceptual framework. *Designing Qualitative Research*, 3, 21~54.
- McCombs, M., & Ghanem, S. (2001). The convergence of agenda setting and framing. In S. Reese, O. Gandy, & A. Grant (Eds.), *Framing public life* (pp. 67~81). Mahwah, NJ: Erlbaum.
- McComb, M. E., & Shaw, D. L. (1972). The agenda setting function of media effects. *Public Quarterly*, 36, 176~187.
-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book*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Monge, P. R., & Contractor, N. S. (2003). *Theories of communication networks*. Oxford University Press.
- Monge, P. R. (1987). The network level of analysis. In C. R. Berger & S. H. Chaffee (Eds.), *Handbook of communication science* (pp. 239~2705). Newbury Park: Sage.
- Moon, H. K. (2009). *Effects of education program on preventing sexual harassment for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angmyung University, Seoul.
- Patton, M. Q. (1980). *Qualitative evaluation methods*. Beverly Hills, CA: Sage.
- Patton, M. Q. (1987). *How to use qualitative methods in evaluation* (No. 4). Beverly Hills, CA: Sage.
- Reid, S. A. (2012). A Self-Categorization Explanation for the Hostile Media Effect. *Journal of Communication*, 62(3), 381~399.

- Reicher, S. (1987). Crowd behaviour as social action. In J. C. Turner (Ed.),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pp. 171~202). Oxford, UK: Basil Blackwell.
- Rogers, E. M., & Storey, J. D. (1987). Communication campaigns. In C. R. Berger & S. H. Chaffee (Eds.), *Handbook of communication science* (pp. 419~445). Newbury Park: Sage.
- Rubin, H. J., & Rubin, I. S. (2005). *Qualitative interviewing: The art of hearing data*. Thousand Oaks, CA: Sage.
- Strauss, A., & Corbin, J. M.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Sage Publications, Inc.
- Tajfel, H. (1972) Social categorization. English Manuscript of “La catégorisation sociale. In S. Moscovici (Ed.), *Introduction a la psychologie sociale Vol. 1* (pp. 272~302). Paris: Larousse.
-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74, 33~47.
- Turner, J. C., Hogg, M. A., Oakes, P. J., Reicher, S. D., & Wetherell, M. S.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Cambridge, MA: Basil Blackwell.
- Weiss, J. A., & Tschirhart, M. (1994). Public information campaigns as policy instruments.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13(1), 82~119.
- Wilson, J. Q., & Kelling, G. L. (1982). Broken windows. *Atlantic monthly*, 249(3), 29~38.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Chapter 6. Retrieved from [http://www.who.int/violence\\_injury\\_prevention/violence/global\\_campaign/en/chap6.pdf](http://www.who.int/violence_injury_prevention/violence/global_campaign/en/chap6.pdf)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94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Retrieved from [http://www.ohchr.org/EN/UDHR/Documents/UDHR\\_Translations/eng.pdf](http://www.ohchr.org/EN/UDHR/Documents/UDHR_Translations/eng.pdf)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993).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Retrieved from <http://www.un.org/documents/ga/res/48/a48r104.htm>

논문투고일: 2018년 8월 29일

논문심사일: 2018년 10월 8일

게재확정일: 2018년 10월 18일

# **Examining Direction for Sexual Violence Prevention Public Campaign**

## **Media Coverage and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n Sexual Violence\***

**Lim, Yon Soo\*\***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Hongik University

**Jang, Ahnlee\*\*\***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Hongi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current research is to focus on sexual violence and suggests ways in which more effective sexual violence prevention public campaign can be delivered. For this objective, media coverage of 13 major Korean news outlets were examined by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By focusing on how news have covered issues concerning sexual violence from 2010~2017, we sought to examine key terms, concepts, ways in which news have framed topics related to sexual harrassment, sexual assault and sexual violence. In addition, by examining how 34 college students make meaning of sexual violence we sought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media as well as how college students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sexual harrassment, sexual assaults and sexual violence. The results of media coverage indicate that the media differentiates between the 3 terms and women, law, police were the most frequently used terms-indicating all 3 terms are related to violence against women. Results of the focus group interviews revealed that participants understood 3 terms to be different, moreover, they suggested society's high tolerance on sexual harrassment and assault to be problematic, also adding that ways in which media covers these issues has influence on secondary damage. Specific ways to bring more effective sexual assault prevention campaign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suggested.

**KEY WORDS** sexual assault • sexual harrassment • sexual violence • social perception • media coverage • semantic • qualitative research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2017 Hongik University Research Fund.

\* First Author, yonsoolim@hongik.ac.kr

\*\* Corresponding Author, hipr@hongik.ac.kr